

신명기 8:11-20

- 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 12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 13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 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 16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 17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 19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 20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광야적 삶으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철학자의 신(神)도 아니요 수학자의 신(神)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숨어 버리시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도다. - 파스칼

1. 광야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
 - A. 약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로 광야생활을 하게 됩니다.
 - B.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 나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 C. 그 광야 기간 동안, 다윗의 시편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D. 그 광야 훈련으로 인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길은 끊임없는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 A. 정착하고 싶어도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 B. 자기 역할에 따라 존중받고 인정받는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 C. 안주하고자 하지만, 안주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 D. 끊임없이 일하고 수고하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 E. 쓰임 받고 싶지만 쓰임 받질 못합니다. 쓰임 곳이 없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 F. 세우고 가꾸고 다스릴만한 기회를 얻질 못합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 G. 심고 키우고 열매를 얻을만한 기회를 얻질 못합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겸손은 은혜이며 과거와 현재의 죄를 깊이 자각하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가치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 제임스 맥코시

민수기 33:50-56

50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1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땅에 들어가거든

52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53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54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55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56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3. 오늘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A. 무언가 성취하고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광야적
삶인 것입니다.

B.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광야적 삶인 것입니다.

C. 부족한 것들이 많고 필요한 것들이 산재해 있다고 해도,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삶, 바로 광야적 삶입니다.

D. 무언가 좀 가지고 누리고 주어졌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교만
하거나 자만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적
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바로 광야적 삶입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경험과 그 광야적 삶을 외면하면 안됩니다.

A. () 삶과 ()의 삶은 다릅니다.

B.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분만을
의지하기 위해 앞드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광야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C. 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저버려서 자기의 방법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광야 길을 피할 수 없고,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D. 광야적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꿈과 비전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인 반면,

E. 광야의 삶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훈련을 피할 수 없는 삶입니다.

F. 광야적 삶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씨를
뿌리고 심고, 거두어 열매를 보는 삶인 반면,

G. 광야의 삶은, 씨를 뿌리고 심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심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방식과 방법대로 따 까먹어 버려서 무언가 심을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치중되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착하고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자라기 보다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자나 영향력의 사람이라기 보다는, 세상이 놀랄만한 일들과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의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5. 광야적 삶이란,

A. 일용할 양식에 대한 ()으로 사는 삶입니다.

-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신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일 일의 염려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 먹을 것보다 심을 것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B. 행할 길을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출애굽기 40:36-38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 세상의 유행이나 오락이나 문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 쓸모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C. 하나님의 ()만으로 사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확인하고자 합니다.
-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확인하고자 합니다.
-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면 충분하다며 기뻐하는 삶입니다.